

# 전남

## ■ '위기의 농촌경제' 농지은행으로 넘자

# 농지 매각대금으로 부채 털고 임대 경작

### ❷ 회생 지원 농지매입

농가 부채문제는 우리나라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힌다. 정부는 1961년 '농어촌 고리채 정리사업'과 1987년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 등 정책을 펼치고 선거철마다 농가부채 탕감 문제가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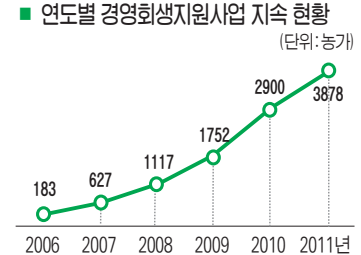
◇2010년 농가부채 2721만원= 통계청의 '2010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말 현재 우리나라 농가소득은 3212만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지만, 농가부채도 2721만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형태별로 살펴보면 농가부채는 특작농가가 6510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축산농가 6103만6000원, 화훼농가 3613만9000원, 채소농가 2373만7000원, 논벼농가 1416만7000원 순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호당 농가부채는 ▲1965년 1만1000원 ▲1970년 1만6000원 ▲1980년 33만8000원 ▲1990년 473만4000원 ▲2000년 2020만7000원 ▲2010년 2721만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농어촌공

사는 지난 2006년 '경영 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을 도입했다. 이는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매각 대금으로 농가부채를 상환토록 한 후 부채 청산을 위해 농지를 매도한 농가에 다시 임대해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 경영이 정상화



시켰다. 이를 통해 3878 농가가 악성 부채로부터 벗어나는 등 농가부채 문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우리나라 호당 평균 부채는 2003년 이후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이 사업이 도입된 2008년부터 부채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공사는 지난 2007년을 정점으로 농가부채의 감소 및 증가세 둔화 경향이 나타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지만 경영회생 지원사업 추진의 영향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전남지역본부의 2006년부터 현재까지 경영위기 농가 710호의 농지 1330ha를 1362억원에 매입해 담보농지 매매처분의 사전예방으로 476억원의 자산가치를 보존했다. 또 고율의 연체이자(14%) 부담대신 저렴한 농지 임대료(1% 이하) 부과로 연간 177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했다.

김행운 전남지역본부장은 "올해도 133억5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28ha의 농지를 매입, 경영위기에 처한 많은 지역농가에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1%대 임대료로 고율 연체이자 대체

### 전남본부 농가 710호 농지 경매 예방

된 시점(7~10년)에 당해 농지를 환매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의 농가부채 대책은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기에 초점을 맞춘 반면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 사업은 발상을 전환해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5174명의 농업인이 사업지원을 신청, 이 가운데 74.9%인 3878명(지원자 평균연령 53.4세)을 지원했다.

농지면적은 총 5196ha로 농가평균 1.3ha를 매입했으며, 지원금액은 총 9070억원으로 농가평균 2억 3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신청농가의 경영위기 사유는 부채농가가 3750명(97%)을 차지하고, 나머지 3%는 재해농가(128명)였다. 지목별 매입농지는 논이 3298ha(64%)로 가장 많았으며 밭 1423ha(27%), 과수원 475ha(9%)를 차지했다.

◇총 2993억원 농지 자산가치 보존=농지은행은 경영회생 사업을 통해 부채 농가의 담보농지 매매처분 사전예방으로 6년간 총 2993억원(호당 7700만원)에 해당하는 농지의 자산가치가 보존됐고, 경영위기 농가들은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저렴한 임대료 납부로 연간 1197억원(호당 3100만원)의 연체 이자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분



**대촌농협 뜻고추 공동 선별장 개장** 대촌농협은 13일 광주시 남구 월성동 학승지점에서 뜻고추 공동 선별장 개장식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전봉식 조합장, 광주시 박영선 생명농업 과장, 최영호 남구청장, 박태식 농협 광주지역본부장. /남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목포시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

## 급식·교통·위생수당 통상임금 포함 농고 이견

### 평균연봉 4400만원...민간위탁 검토 목소리

목포시 소속 환경 미화원들이 임금 을 둘러싸고 목포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여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소송은 급식비·교통 보조금·위생수당 등 3개 수당을 통상 임금으로 포함하느냐, 아니냐가 쟁점이다. 환경미화원 노조(복수) 측은 대법원 판결(2011년 9월 8일)에 따라 미포함된 통상임금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연가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것과 오전 5~6시 근무에 대한 야간 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목포시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것이어야 하며 실제 근무 성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또 다른 대법원 판결(2007년 5월 15일)을 근거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3개 수당은 30일 만근 했을 경우 지급하고, 결근시에는 규정에 따라 공제해 하고 지급했기 때문에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오전 5~6시 야간근무 인정과 관련해 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동법 제93조 및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목포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관한 규칙'조에 따라 미화원 모집 공고 당시 사전공지했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른 노사협의 사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법원의 판결 여부에 따라 3개 수당이 통상 임금에 포함될 경우 임금 50.48% 인상(임금 기준)효과와 함께 시는 연간 7억~1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 170명의 환경미화원들이 반

는 평균 연봉은 대략 4400만 원(2년 차 3800만원) 선이며, 연간 30일 법적 휴무 등 공무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 휴일근무도 개인당 연간 70~80일에 달해 수당으로 연간 20여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부 시민들은 끈질기게 시를 보고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차에 민간 위탁운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전남 도내에서는 여수시와 광양시가 민간 위탁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시 환경과 관계자는 "미화원 노조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미화원들의 평균 연봉 5000만 원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연간 87억원이 넘는 과도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휴일근무 대폭 축소와 민간 위탁 운영방안 검토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 전남농협 약정 햇보리 20일부터 매입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농가와 약정한 2012년산 햇보리를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입한다. 매입약정 물량은 3만3000t으로 전국 약정 물량(4만8776t)의 61.6%를 차

지한다. 품종별로는 갈보리 26t, 쌀보리 9161t, 맥주보리 2만843t이다. 매입가격은 40kg 조곡 1등급 기준 으로 ▲갈보리 2만7600원 ▲쌀보리 2만7320원 ▲맥주보리 3만76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가격며, 포대수매만 가능하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정부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약정 및 수매는 없다"며 "농협 중앙회와 주정회사, 맥주회사간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농협을 통해 생산자가 약정 및 수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농어촌공사 보성지사 신사옥 착공

### 박재순 사장 참석 기공식 57억 들여 내년 5월 완공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사옥이 오는 2013년 5월 완공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박재순은 13일 보성을 보성리에서 보성지사 신축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보성지사 사옥은 사업비 57억원을 들여 지상 4층(연면적 1776.4㎡) 규모로 건립된다. 주요 시설로 1층에는 기계실, '내고향 지킴이' 대화방이 만들어지고 2층에는 농지은행 사무실, 3층에는 지역개발팀 사무실, 4층에는 다목적실과 회의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기존 지사 사옥은 25년 이상된



노후한 건축물로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박재순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신축 사옥이 공사와 농·어업인이

정보를 교환하며 의견을 나누고 가까이하는 소통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형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과 쾌적한 농·어촌 만

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일등 공기업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비새는 아파트옥상 · 슬라브 주택 · 빌라 · 공장의 희소식**  
www.phijibung.com

공정직영  
완벽한 시공, 확실한 A/S보장  
전국최다시공팀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출장견적 무료!!

고질적인 슬라브지붕 누수 방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슬라브 방수 관판 시공법 개발**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료가 최소 30% 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 이상간다.  
5. 장독대, 팔레 건조대를 사용할 수 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 것보다 3~4배 더 잘말린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만 완벽하게 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리미터 다시 틀어서 물빠짐이 원활하다.  
※ 상기 특허 도형 및 이미지 도용시 개발비용이 법적 고발조치 할수 있습니다.

**단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 방수 시스템**  
2시에 우리축사의 온도가 33도였는데 이정도 온도라면 집안에서는 못견딜정도로인데 지금은 시원하고 선풍기 없어도 생활해도 배수도 100리미터 새로 틀었기 때문에 아무리 폭우가 와도 물빠짐엔 걱정이 없습니다. - 황금국 -

방수를 한 것이 벗겨져서 무엇을 할까 고민중에 방수처리도 완벽하게 되고 슬라브 지붕도 그대로 보존되는 이종호씨가 물어본 이런 방수구체이리 시공을 했을때 역시 슬라브 지붕세는는 강판이 최고입니다. - 임봉준 -

슬라브 강판을 한지 4년이 되었는에도 색도 안 변하고 여름에 들어서 일하고 돌아오면 첫째, 신선하니 시원하고 선풍기 안틀어도 되고 겨울에는 외풍이 덜하고 연료비도 기름 두 드림 넣어 놓으면 전보다 3~4% 남으니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순용-

**한농 칼라강판 지붕개량 문의 061)335-8842 / 010-4024-4005**

**이태리가구 50% SALE**  
첫 파격세일 25일까지

소파, 식탁/좌탁, 라텍스 매트리스

쇼핑몰 **www.hong79.com** **NAVER** **홍스페이스** 검색

**엔틱식탁** 100% MADE IN ITALY

**모던소파** 100% MADE IN ITALY

고객님의 매트리스는 아래와 같습니까?

**던롭필로 삼사 라텍스 침대**

머리 어깨 척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다리  
5% 15% 60% 15% 5%

**친환경 원목가구 식탁, 소파, 침대**

**라텍스, 소파, 식탁 신상품 입점**  
동구 장동 58-15 장동로터리 (구도청 옆) **홍스페이스** ☎1899-0240